



주일설교 말씀나눔지

2023. 4. 16

「마가복음 선한 번째 말씀」

아직 변화되지 않았을 뿐이다

The Change Has Yet to Come

마가복음 14:17-26

-
17. 저물매 그 열둘을 데리시고 가서
 18.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대
 19.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
 20.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
 21.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겐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
 22.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
 23.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
 24.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
 25.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
 26.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가니라
-

1. 유월절 만찬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연중 가장 큰 명절의 식사입니다.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충격이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 “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(18절)”

1)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? (19절)

2)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?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.

3) 위 질문을 함께 나무면서 교만한 사람이 스스로에게 할 수 없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.

2.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. 그런데 왜 상처를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에 비해 찾아보기 힘들까요?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질문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.

3. 마26:25에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오간 대화를 보면서 가롯 유다는 결국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봅시다.

4. 그 이후에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찬을 베푸셨습니다. 가롯 유다도 그 성찬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.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뉘우침이 없음을 아셨지만, 그를 성찬으로 초대해주셨습니다.

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?

다음 성경구절을 참고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. (엡5:8, 딤후3:2-3, 골3:14, 고전13:2)

